한국 최초 테라와다 계단 '시마' 설치된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6월 9~10일 법회

스리랑카 교단 종정등 15명 한국 방문
한국 테라와다 승단 형성…갈마 · 결집
시마 공간 건축불사 위한 상시 모연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주한스리랑카 사찰인 마하위하라 사원(주지 담마끼띠)이 한국 최초의 테라와다 계단 '시마(sīmā)'를 설치한다.

아산 마하위하라는 6월 9일~10일 스리랑카 불교교단 종정 마쿠라웨 위마라 스님을 비롯한 장로 15명을 모시고 테라와다 계단 인가를 위한 시마 대법회를 봉행한다.

시마(sīmā)는 테라와다(남방불교)에서 계를 받는 공간, 즉 경계(결계)를 의미한다. 이번 대법회에서의 시마 인가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도 테라와다 승가공동체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전통의식들이 공식적으로 봉행될 수 있게 된다.

테라와다에서 시마는 승단의 근본토대다. 시마 없이는 비구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마가 설정되어야 출가를 하고, 비구가 될 수 있다. 시마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여러 지역으로 포교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인가로 처음 만들어졌다. 비구들의 숫자와 승가의례(saṅghakamma)가 크게 늘어나면서 승가가 한 곳에 모일 수 없게 되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화합을 위해 각 지역 내에 승가공동체(samagga saṅgha) 경계를 설정한 장소인 '시마'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한국 최초로 봉행되는 시마 대법회는 6월 9일~10일 봉행된다. 대법회를 위해 스리랑카 불교교단 종정 마쿠라웨 위마라 스님을 포함한 15명의 장로 스님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테라와다 전통에 준해 이 같은 인적 구성을 갖추는 데에만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마하위하라 사원 내 시마는 특별하게 청정한 공간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해당 공간의 시마 인가는 15명의 장로 스님들에 의해 6월 9일 받게 되며, 인가 직후인 6월 9일 밤부터 10일까지 율장을 독송해 시마를 청정케 하고 인가를 공고히 하는 법회를 봉행한다.

시마 대법회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테라와다 승단의 갈마, 자자, 포상, 결집 등 부처님법에 의거한 전통의식이 공인되므로, 테라와다 승가공동체의 형성과 확대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하위하라 사원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이번 법회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테라와다 시마가 설정되는 행사로 부처님의 교법이 이 땅에 정식으로 뿌리내리게 되는 뜻깊은 법석"이라며 "시마는 붓다의 교법을 유지하고 출가자를 배출하는 불교의 근간이 되는 장소인 만큼, 시마홀(시마공간)이 한국에 있음으로 인해 테라와다 불교의 저변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한편 시마 대법회에는 테라와다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도 참석할 수 있으며, 법회 봉행을 위한 보시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스님들의 비자와 왕복 비행기표는 이미 모연이 완료됐고 시마 경계 비용은 선착순 지정 보시에 한정된다. 이 외의 보시는 자율보시로, 일괄 취합 후 항목을 배정해 법회 봉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시마 인가 후에는 해당 공간에 시마 전용공간을 조성하는 건축불사도 함께 진행된다. 시마는 마하위하라 사원 내 40평 가량의 공간이며, 향후 건축물을 조성해 청정한 수행공간으로 활용된다.

기업 641-042679-04-016 예금주 : 사단법인 마하위하라. 010-8427-0106

조선 '사찰 민화' 속 화승 역할 조명

불교미술사학회 · 민화학회, 4월 8일 공동 학술대회

조선시대 후반 사찰 민화의 등장과 화승의 역할을 조망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불교미술사학회(학회장 송천)와 한국민화학회(학회장 유미나)는 4월 8일 통도사성보박물관 문화센터에서 '불화와 민화: 사람과 물질의 조우와 만남'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불화와 민화가 교류한 영향과 화승들의 역할을 살펴보며 민족 문화 속에 불교가 끼친 문화 영향력을 살피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됐다.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전개된 불화를 보면, 이전 시기에 비해 유난히 민간의 취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특히 사찰민화라고 하는 포벽화 등에서 민화의 분위기를 강하게 읽을 수 있다"며 "민화가 유행하며 전래된 이미지와 상징은 불화를 그린 화승들이 차용하여 그림에 응용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승에 대해 "대중적이고 개방적인 불교의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민화적인 요소는 불화에 수용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화의 자체적인 유행과 이를 적극 수용한 화승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불화 속의 민화 혹은 사찰민화는 일반 민화가 미치지 못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의 기조 발표에 이어 1부에서는 박세진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사가 '사찰 벽화 고전소설도 연구', 박본수 경기도박물관 학예실장이 '통도사 감로탱화에 그려진 풍속화와 민화적 장면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

2부에서는 김수연 금산사성보박물관 학예사가 '영남지역 산신도에서 보이는 민화적 요소'를 주제로, 신은미 인천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이 '금호당 약효작 독성도의 도상 특징과 배경 요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현중 전남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교수가 '조신 신앙과 조선 후기 사찰의 조왕도 봉안', 김윤정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마포 복개당 무화 연구' 주제의 발표를 소개했다.


불교미술사학회와 한국민화학회는 4월 8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불교미술사학회 회장 송천 스님을 비롯해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송천 스님은 "일반 민중의 정서가 담긴 민화와 불교의 종교적 기능이 담긴 불화의 만남은 새롭게 자리잡은 전통문화예술의 분야"라며 "앞으로도 발전을 위해 양학회의 교류와 연구를 이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유미나 한국민화학회장은 "오늘 학술대회가 열린 이곳 통도사는 불화와 민화가 만나 새롭게 전통미술이 구현된 장엄한 도량"이라며 "이곳에서 학술대회가 열려 뜻깊으며 학술대회를 통해 민화연구 확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마음과학원, 제9회 한마음부모교육 모집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

삶에 대한 긍정 가치관 형성
배우자, 자녀 대한 이해 증진
안양시 지원사업, 무료 수업
선착순 40명, 홈페이지 접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이 '제9회 한마음 부모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마음 부모교육인 '행복한 부모되기' 프로그램은 안양시 평생교육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으로 최근 4년동안 시민인성 함양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제9회 교육 참가 대상은 총 40명으로 학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한마음 부모교육은 부모 이전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삶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를 통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는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갈등 해소로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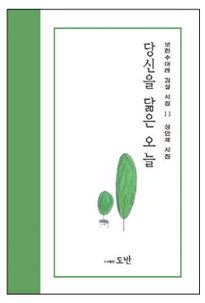
교육은 5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안양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안양시 지원사업으로 수강료는 무료로 선착순 접수 받는다. 신청방법은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edu.hansi.org)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마음과학원 측은 "아이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행복해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031)470-320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뇌성마비 성인제 시인 '당신을 닮은' 출간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발간
세상 소통 시 70여 편 수록



장애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최근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시리즈 제11집 성인제 시인의 '당신을 닮은 오늘'을 출간했다.

'당신을 닮은 오늘'에는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성인제 시인이 매일 세상과 소통하며 써온 시 70여 편이 수록됐다. SNS와 시 낭송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던 시들로, 화려한 문체가 아닌 일상적인 단어들로 표현됐다.

성인제 시인은 70여 편의 시를 통해 있는 그대로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글로 옮겨, 진솔한 시인의 삶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당신을 닮은 오늘' '행복할 준비' '밥 한번' 등이 대표적이다.

향기 가득한 오늘 / 고운 햇살 쏟아지는 화창한 날 / 오늘의 날씨는 당신을 닮았습니다 / 오늘은 당신처럼 맑습니다 / 오늘은 당신처럼 아름답습니다 / 맑고 아름다운 날씨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 화창하고 아름다운 당신이 나를 설레게 합니다 / 당신의 맑고 고운 마음이 오늘을 편안하게 합니다 / 당신의 아름다운 자태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 오늘은 당신 때문에 편안한 행복을 느낍니다 / 당신처럼 아름다운 향 가득한 날씨가

〈당신을 닮은 오늘〉 전문

성인제 시인은 "공개된 낙서장에 써놓은 것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주셨다"면서 "생활 속 일상을 있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글로 옮기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이렇다 할 활동을 못하던 차에 그동안의 시들을 하나둘 모아 책을 엮어 이렇게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게 돼 설렌다"면서 "몇년 간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 출신인 성인제 시인은 2006년 보리수아래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활동에 참여했다. 보리수아래 음반 '꽃과 별과 시' 등에서 작사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0년 2월 첫 번째 시집 '행복한 기다림'으로 사람들에게 어두워가는 세상에 희망의 빛을 주기도 했다.

보리수아래는 감성 작품집 발간 사업으로 2020년부터 성인제, 이경남, 김영관, 홍현승, 이순애, 성희철, 장효성, 고명숙, 윤정렬 등 장애시인들의 시집 11권과 수필집 2권 등 13권을 발간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시인들의 작품활동을 사회에 알려 작가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창작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힘쓰고 있다.

보리수 아래 최명숙 대표는 "이 사업은 보리수아래 장애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시인에게도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 공로패

4월 7일, 경찰불자회와 제주불교 발전 공로 표창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경찰 내 불교 포교 활성화와 제주불교발전에 이바지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게 총무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현재 대한민국경찰불교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1988년 경위로 경찰에 임관 후부터 다양한 보직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왔다. 2017년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 재직 시에는 서울경찰청 불교회장을 맡아 조계사 템플스테이와 부산 범어사 성지순례를 진행하며 경찰불자회를 이끌었다.

2021년 12월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 시 협소하던 경남경찰청 법당을 확장하고 쾌적한 법당을 조성해 불자 경찰들의 신행 활동을 도왔다. 또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제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새로 준공된 제주경찰청사에 개신교 경목실, 가톨릭 경신실과 함께 제주경찰청 최초로 경찰법당을 마련했다. 제주경찰법당은 오는 5월 9일 점안식과 함께 5월 10일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봉축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상률 청장은 "경승 스님들의 원력으로 제주경찰법당을 조성할 수 있었다"면서 "법당은 참혹한 범죄현장을 목격 후 트라우마가 심한 경찰관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간이 되어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명상을 통해 감정을 컨트롤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한다"면서 "법당을 개방해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제주 경찰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명상을 통해 경찰관들의 마음이 안정되면 능률도 오를 것"이라며 "마음에 잡념이 없는 상태로 경찰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 · 전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다하는 불자 경찰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를 전했다.

오윤겸 수습기자

화엄사, 올해도 동국대에 1000만 원 기부

'지역불자 육성장학' 기금 전달
구례, 순천 학생 10명에 장학금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국대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4월 12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화엄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수여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법인에서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윤재웅 총장, 하홍열 대외협력처장, 장환영 학생처장과 화엄사 장학생들이 함께 했다.

이번 행사는 건학위원회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건학위원회가 지역사찰과 동국대에 재학 중인 해당지역 학생들을 연결해 수여하는 장학금으로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 등 인재불사를 목표로 한다.

기금 전달은 지난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이날 37회를 맞이했다. 특히 화엄사는 지난해 1월에 이어 올해 1천만 원을 추가로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역사찰과 해당지역 학생의 인연을 맺어주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제도는 동국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장학제도"라며 "학생들이 화엄사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회진출해 해당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와 모든 불교계가 동국대의 미래이자, 한국불교계의 미래인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오늘 이 장학금을 통해 좋은 학생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지 덕문 스님은 "이 장학금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커나갈 수 있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장엄한 지리산 아래의 화엄사라는 품 안에서 학생들이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된 선경화(대학원 불교학과 2학기) 학생이 장학생을 대표해 화엄사와 덕문스님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선경화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대학원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월과 3월 43일 간 1167km, 불교 8대 성지를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현지 영상을 장학생들과 함께 시청하며 순례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